

설비투자촉진방안 마련

經濟長官회의 거쳐 이달 施行

정부는 최근 위축된 기업들의 투자마인드를 회복시키기 위해 각종 설비자금의 지원 금리를 인하하는등 설비투자촉진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17일 재무부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오래 총 23조8천4백억원의 설비자금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향후 경기전망에 대한 불안감 및 對선진국수출의 부진지속등으로 각 기업체들이 설비투자를 꺼리면서 설비자금소진이 부진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각종설비자금의 금리를 낮추고 용자조건을 완화하는 한편 외화대출 지원을 늘리는등 설비투자촉진 방안을 마련, 18일 경제장관회의를 거쳐 이달중 시행할 계획이다.

올들어 지난 6월말까지 공급된 시설자금을 자금조달별로 보면 금융기관을 통한 간접금융이 7조2천7백43억원으로 금년 지원 계획액 18조6천2백억원의 39% 수준에 불과하며 회사채발행 또는 주식발행을 통한 직접금융은 올 계획 9조1천억원중 40%인 3조6천2백84억원이 공급되는데 그쳤다.

금융기관별로는 産銀이 4조9천6백억원중 1조6천1백15억원을 공급하는데 그쳤고 중소기업은행은 1조원중 3천9백19억원, 장기신용은행은 1조2백억원중 3천6백33억원을 각각 지원해 기업의 투자자금조달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제2금융권에서 설비자금지원에 큰 몫을 하고 있는 리스는 올해 5억5천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나 상반기중 3조1천1백21억원을 공급했으며 최근 이용수요가 크게 줄고 있다.

정책자금의 경우 금리조건이 매우 유리한 국산기계구입자금이 4조9천5백원 목표중 47.4%인 2조3천4백60억원이 공급돼 호조를 보이고 있을 뿐 기술개발자금은 1억5천8백억원 가운데 33.9%인 5천3백60억원, 자동화설비자금은 1조6백억원 가운데 29.2%인 3천94억원만이 공급돼 업계의 투자마인드 위축을 여실히 반영하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설비투자부진을 타개키 위해 용자실적이 부진한 자금을 중심으로 대출금리를 현행보다 1~2% 포인트 낮추고 용자지원대상 및 비율등 지원조건을 개선할 방침이다.

또 금리수준이 일반자금에 비해 훨씬 낮은 외화대출에 업계이용수요가 몰리고 있는 점을 감안, 지원한도를 지난달 30억달러에서 40억달러로 10억달러 증액한데 이어 용자비율을 대기업 80%(현재 60%), 중소기업 90%(80%)로 상향조정할 방침이다.

특히 내년도 외화대출지원을 60억달러로 늘려잡고 이중 상반기 지원예정인 30억달러의 외화대출심사를 연내 앞당겨 실시함으로써 기업설비투자를 촉진할 계획이다.